

보도자료 2021년 10월 14일 | 문의: 나우 프로덕션: daeun.ahn12@gmail.com (안다운 사원)

Press Kit | 고해상 이미지: [Click](#) | 심층 보도자료 [Click](#) | 예고편 [Click](#)

* 이진영 감독이 11월 18일, <무지개 나라의 유산> 본편 촬영 및 홍보를 위해 내한합니다.
인터뷰 희망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 제 41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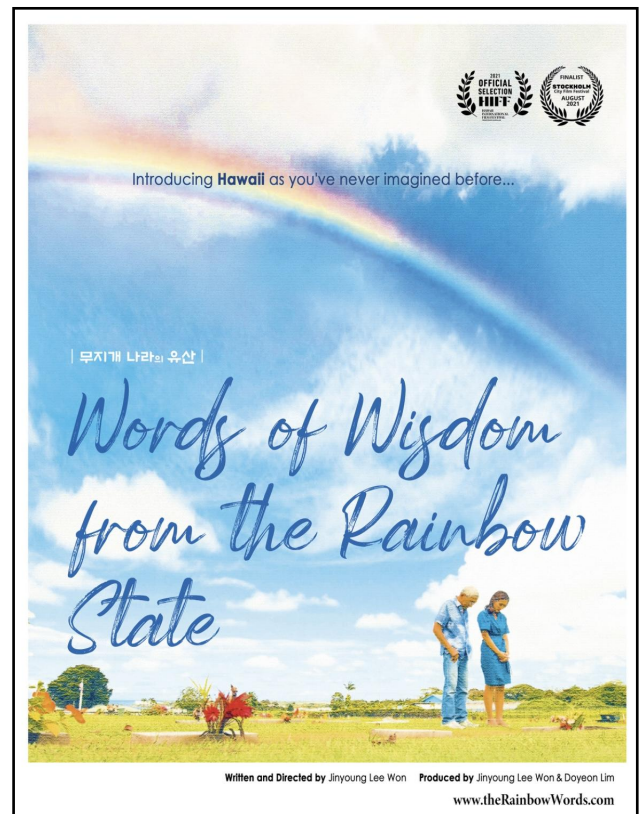
-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시발점, 하와이
-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감독의 여정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 제 41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요약)

독창적인 시선으로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무지개 나라의 유산: 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 www.theRainbowWords.com> 이 제 41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해외 관객과 만난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은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하와이 여성 독립 역사의 기록을 다루는 한 편, 각종 차별과 혐오가 난무한 팬데믹 시대에 더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15년 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 현지 한인방송 앵커와 신문 기자 등으로 커리어를 쌓아온 이진영 씨가 극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하와이 '나우 프로덕션'과 국내 '솔픽처스' 제작사가 공동 제작했다.

(본문)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무지개 나라의 유산: 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 www.theRainbowWords.com> 이 제 41회 하와이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해외 관객과 만난다.

1903년 1월 13일은 최초의 한국인 그룹 102명이 하와이 땅을 밟은 날로 한국인의 미주 이민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고국을 등지고 먼 이국땅으로 떠났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무지개 나라의 유산'은 그 답을 찾아가는 감독 본인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은 이진영 감독은 15년 전 하와이로 이민가 현지 한인방송 앵커와 신문 기자, 작가 등으로 경력을 쌓았다. 첫 연출작인 '무지개 나라의 유산'에서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하와이 한인 여성독립사를 다루는 한 편, 각종 차별과 혐오



가 난무한 팬데믹의 시대, 더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현지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전 썬 하와이 현지 촬영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프로덕션 '솔픽처스' 임도연 대표 감독이 편집 총괄을 맡았다.



본 영화제 초청작은 <무지개 나라의 유산> 프로젝트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현재 그 본편에 해당하는 1세대 한인 이민자 후손과의 인터뷰 시리즈물이 현재 제작 중이다. 한국인 최초로 미주 대법원장직을 수행한 로널드 문 전 하와이 주 대법원장, 역시 한국인 최초로 미주 시장직에 당선된 해리 김 전 힐로 시장 등 하와이 주류사회에서 널리 존경받아 온 한인 후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잊혀져가는 이민 1세대의 삶과 지혜를 기록하고자 한다고 이 감독은 밝혔다.

올 해 41회를 맞는 하와이국제영화제(Hawai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ww.HIFF.org)는 영화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 가교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81년 시작된 세계적인 명성의 영화제다. 올 해엔 36개국 220여편의 작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영된다. 한국영화로는 황정민 주연의 인질(감독 필감성), 행복의 나라(감독 임상수) 등이 초청됐다.

###

나우 프로덕션: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종합 콘텐츠 제작사. 2012년 설립 이래 기획, 촬영, 조명, 편집, 믹싱 등 각 분야 하와이 최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방송물부터 디지털 콘텐츠, 도서와 웹 저널 등 하와이 관련 독창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www.therainbowwords.com

솔픽처스: 서울에 위치한 종합 프로덕션사. EBS를 비롯해 국내 우수 방송사 프로그램의 포스트 프로덕션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등의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2013년 서울독립영화제 특별초청작 <SF가는 길> 연출 및 제작, 2017년 북한인권영화제 제작지원작 <북도 남도 아닌 (Why I Left Both Korea)>의 포스트 프로덕션 및 편집을 맡았다. www.solepic.co.kr